

지역 소식 통

정읍시, 치매환자 치료 중위
소득 140% 이하로 완화

정읍시는 치매환자와 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2025년부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을 기존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40% 이하로 완화해 확대 운영한다.

이번 조치는 더 많은 치매환자가 경제적 부담 없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치매 치료를 위한 약제비와 약 처방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을 월 최대 3만원(연 최대 36만원)까지 실비로 지원하는 제도다.

치매 진단을 받고 치매 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시 치매안심센터에 △치매 진단코드 가 포함된 처방전 △신분증 △통장 사본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손희경 보건소장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기준 완화를 통해 더 많은 치매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개사육 농장주
전 · 폐업 지원

고창군이 새해 8억4500만원을 투입해 개 사육 농장에 대한 전 · 폐업 지원에 나선다.

앞서 지난해 제정된 ‘개사육 종식법’에 따라 2027년 2월7일부터 개의 식용 목적 사육 · 도살 · 유통 · 판매가 금지된다. 현재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업계는 금지 시점까지 전 · 폐업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개사육 농장주에 대한 전 · 폐업 지원금액은 마리당 최대 60만이며 폐업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받을 수 있는 지원금 규모가 커진다. 건축법, 가축분뇨법, 농지법 등 위반 사항이 있을 시 지원대상에서 배제되거나 감액된다.

또한 개사육 농장주가 폐업하는 경우 시설물 잔존가액은 감정평가로 산출해 지원하며 철거는 지자체가 대행한다.

/고창=김영식 기자

터미널 도시재생 실무협의 완료

고창군-LH, 3월까지 주택경투심 완료 후 고창군과 시행협약 체결 계획

고창군이 지난해 말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고창 터미널 도시재생 혁신지구* 후보지 경영투자심사(경투심)와 사업참여 알림을 통보 받았다고 지난 3일 밝혔다. LH참여에 따른 실무 협의가 완료되면서 사업추진에 속도감을 더할 수 있게 됐다.

LH공사는 주택경투심(본심)을 오는 3월까지 완료 후 고창군과 시행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앞으로 공동주택 사업부분에 대해 LH공사와 공동시행함으로써 재정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LH공사와의 협의 과정에서, 향후 사업성(수익률)과 유지관리 등을 고려해 복합터미널시설과 공동주택을 분리하는 사업계획 변경이 확정됐다. 당초 고창 터미널 혁신지구 사업 사업계획 고시 당시(2023년 12월), 터미널 부지에 터미널기능을 포함 18층 높이의 주거복합건물을 건축하려 했다.

고창 터미널 혁신지구는 2022년 12월 군단위에서는 전국 최초로 공모사업에 선정된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국가시범지구다.

총사업비는 국비 등 1777억원으로 쇠

락해가는 터미널주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인구의 정주여건 마련, 고창의 유가농·신성장 산업에 중점을 뒀다.

고창군은 2026년 1월 사업 착공을 목표로 설계공모를 위해 공공건축심의와 기존터미널 이전을 위해 임시터미널 조성사업 설계를 추진 중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 터미널 혁신지구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여 고창군의 중심지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고창군의 랜드마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은 가족전염병의 예방·예방, 전염병 발생 시 의료지원 등 가족 방역 업무를 위해 지난 2일 관내 개업 수의사 5명을 2025년도 공수의로 위촉했다.

‘내 농장 내가 지킨다’

부안군, 2025년도 공수의 위촉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가족전염병의 예방·예방, 전염병 발생 시 의료지원 등 가족 방역 업무를 위해 지난 2일 관내 개업 수의사 5명을 2025년도 공수의로 위촉했다.

위촉된 공수의는 체계석 연합동물병원장, 홍성진 닥터홍동물병원장, 이기봉 초원동물병원장, 김락균 새만금동물병원장, 김태홍 바른동물병원장 등 총 5명이다.

이들은 올해 1년간 담당 지역의 소, 돼지, 가금 등 동물 진료, 농장 환경 검사, 구제역·립피스킨 예방접종, 브루셀라 및 결핵 혈청검사 채혈 등 부

안군 축산과(과장 권오범) 가족방역업무부와 협력하여 관내 축산 농가를 지원해 준다.

권익현 군수는 “전국적으로 구제역, 림피스킨, AI,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주요 가족전염병이 발생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손꼽히는 칠새도래지가 있는 부안도 지난해 12월 AI(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는 등 적극적인 방역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므로 공수의들은 현장 일선 지도자로서 농장 점검 방문 시 ‘내 농장 내가 지킨다’는 기본방역 수칙을 농가에 지도하고 가족전염병 없는 청정 부안 지역 수호의 사명을 갖고 방역업무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장학숙, 2025년 입학생 선발 시작

정읍시민재단이 운영하는 정읍장학숙(경기도 안양시 소재)에서 2025년 신규 입학생을 모집한다. 수도권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정읍장학숙은 정읍 출신 청년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더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번 모집 인원은 재입학생 48명을 제외한 50명으로, 남자 22명, 여자 28명을 선발한다. 입학을 원하는 지원자는 내달 3일까지 평생학습관 2층 정읍시민장학재단(충청로 93)에 방문하거나 이메일(jso04387@naver.com)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자격은 선발 공고일 기준, 본인 또는 부모 중 한 명이 정읍에 주소를 둔 경우에 한하며 수도권 소재 대학교 신입생 및 재학생을 1순위로 선발한다. 이어 통학 가능한 비수도권 대학생, 취업준비생, 재학생 등이 2순위 대상이며 3순위로 국가고시 준비생과 정읍에 연고가 있는 대학생 순으로 선발한다.

취업준비생의 경우 졸업 후 5년 이내 입사가 가능하며 비수도권 대학생을 제외한 2순위 입학생은 2년간만 재학할 수 있다. 국가고시생은 3세 이

하 청년에 한해 1년간 재학할 수 있다.

선발된 입학생은 입사비 7만원(연 1회)을 납부하고 방 형태와 선발 순위에 따라 월 15만원에서 20만원의 사용료를 내면 1년간 생활할 수 있다. 입사 기간은 오는 2월 시작해 2026년 2월까지 유지된다.

시는 학업 성적, 가정 형편, 가난정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내달 6일 선발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제출 서류는 정읍시민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정읍 장학숙으로 하면 된다.

이학수 시장은 “정읍장학숙이 학생들의 자아실현을 돕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다하겠다”며 “더 많은 지역 인재가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6년 9월에 개관한 정읍장학숙은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36개의 기숙사와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어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고·폐학한 학업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마실축제, 전북특별자치도 최우수 축제 선정

도비 2억2000만원 확보

부안군 대표축제인 부안마실축제가 전북특별자치도 최우수 축제로 선정돼 도비 2억2000만원을 확보했다.

지난해 5월 개최된 제11회 부안마실축제는 5월의 선물 가족여행 부안이라는 슬로건 아래 가정의 달을 맞아 부안을 찾은 방문객들에게 봄 소풍을 떠난듯 추억을 선물하는 축제를 연출해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축제 장소물 해돋이마루로 옮겨 정원이되는 특색을 살린 프로그램 배치 등 짜임새 있는 구성으로 방문객들의 만족도를 높였고 청자 효도 밥상, 마미스엔파파스 뮤직 페스티벌, 황금동종을 선물합니다 등 다양하고 차별화된 콘텐츠로 세대를 초월해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이번 최우수 축제 선정을 계기로 더 많은 관광객들이



부안군 대표축제인 부안마실축제가 전북특별자치도 최우수 축제로 선정돼 도비 2억2000만원을 확보했다.

부안을 찾을 수 있도록 매력적인 축제로 만들겠다”며 “지역 경제와 문화관광이 함께 상생하는 축제를 최우수 축제를 넘어 전국적인 축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로 12회를 맞이하는 부안마실축제는 오는 5월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해돋이마루에서 열리며, 더욱 새롭고 풍성한 축제로 방문객들을 맞이할 예정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풍부한 현장 경험 · 탁월한 업무추진력... 민선 8기 군정비전 실현

정화영 신임 부안군 부군수 취임

정화영 신임 부안군 부군수가 지난 2일 직원 상견례를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정화영 부군수는 지난 군에서 공직에 첫발을 내디딘 후 2006년 전라북도도로 전입하



여 지치행정과 인재양성팀장 대외협력국 국제협력과장, 도민안전실 특별사법경찰과장,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산업과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하고 부안군 부군수로 부임했다.

특히, 지난 2022년~2023년 순창군 부군수로 재직하던 풍부한 현장경험과 탁월한 업무추진력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등 두터운 신임을 받아온 정화영 부군수가 우수한

리더십을 발휘해 부안군 군정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정화영 부군수는 취임 인사를 통해 “민선 8기 부안군 발전을 위한 중요한 시점에 권익현 군수님을 보필할 수 있게 되어 영광”이라며 “수소산업 육성, 부안형 푸드플랜 구축, 글로벌 휴양관광산업이 어우러진 세바퀴 경제를 통해 군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 등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